

교사 기리는 국화·메모 수북... “지켜주지 못해 마음 아파”

르포

교사 사망 49일, 서울 서이초 가보니

“선생님께 인사는 했어?”

4일 오전 서울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교사가 가르치던 학급과 같은 학년, 다른 반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작별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은 곧이어 교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땀다. 학교 한쪽에 준비된 추모 공간에는 세상을 떠난 교사를 기리는 국화와 메모가 수북하게 쌓였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행복하셔야 해요’, ‘선생님, 교육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희가 선생님의 바람 잊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가시는 길 외로우실까 봐 또 찾아왔어요. 햇살처럼 환한 선생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간 한편에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글이 포스트잇에 적혀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문 앞에는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이후로는 사회하라’,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합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등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길게 늘어섰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제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에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이현진 기자



4일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 한편에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글이 포스트잇에 적혀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안승진 수습기자

교육계 “A씨 사망, 추락한 교권 탓”

“교사, 가끔 학생과 어려움 있지만 그보다 ‘학부모 갈등’ 더 큰 부담”

“두 자녀가 초등교사 꿈꾸지만 ‘다른 꿈’ 가져보라고 조언해”

이날은 고 서이초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은 A씨의 사망이 ‘추락한 교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한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은 오전 9시부터 계속됐다. 추모 공간을 찾은 교사들은 한참이나 떠나는 발걸음을 망설였다.

경기도에서 2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윤모 씨는 “많은 교사와 착한 아이들까지 뒤돌아서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 혼자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지 18년째가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외국인 교사는 “17년간 워런 교사로 일하며 한국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돼 이를 추모하고자 참석했다”라며 “교사들이 아이들과 가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학부모들과 갈등이 교사들에겐 더 큰 부담이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퇴직한 교사라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자신이 교단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그는 “후배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져

참여하게 됐다. 나 또한 작년까지 근무하며 학부모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을 부르는 애’라는 말이 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명예퇴직해야겠다던가, 이런 말들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녀와 함께 추모 공간을 찾은 학부모들 역시 침묵을 지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산에서 추모공간을 찾았다는 학부모 홍 모씨는 “저희 애들이 유치원생이 있을 때도 어떤 학부모가 허위 민원으로 원장님을 괴롭힌 적이 있었다”며 “이상하게 갑질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더 이상 그런 학부모 때문에 힘든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한 학부모

모는 이날 두 자녀와 함께 서이초를 찾아와 “아이들은 엄마처럼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교단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내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꿈’을 가져보라고 조언했다”고 말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 주최로 학교 강당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49제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직원단체 대표들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오후 4시30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엄정 대응 등 강경 방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전국 교사들은 7주째 서울 광화문과 국회 등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와 전북 군산 등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현진 기자, 이청하·안승진·김주형·차현정 수습기자 lhj@metroseoul.co.kr

“외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비 대상 확대를”

서울시민, 민원제안 창구에 게시 차선 시인성 개선 등 시장에 요청

서울시민들이 아이돌봄비 대상 확대, 차선 시인성 개선, 한강공원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 제고를 요세한 시장에 요청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아이돌봄비 수혜 대상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지급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

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다.

시민 A씨는 시가 대상 자녀 연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대체 24~36개월은 누가 어떻게 왜 정한 것이냐”면서 “많이 양보해서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양육 정책이 좀 더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됐으면 좋겠다”며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선 가정 내 혈연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만 36개월 이하를 시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예산과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다자녀·장애부모·다문화가정, 기타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부재·입원한 사례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확인되는 가정도 아이돌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컨벤션센터서 11일 개최

수원시는 9월 11~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 포럼은 9월 11일 오후 1시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수원시립공연단이 ‘무예24기’ 특별 공연을 하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를 주제로 메타버스, 사회공헌 사업,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해 쉽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례들을 소개하며 세계유산과 공존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작품 철거

서울시가 4일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이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

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에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임씨의 작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5일 (화)

음력 : 7월 21일

수도권 날씨

24~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5 | 해질 / 18:56

연천 21/30 / 동두천 21/30 / 가평 21/30 / 파주 21/30 / 서울 24/31 / 양평 22/29 / 인천 24/29 / 수원 24/30 / 용인 24/30 / 백령도 22/27 / 평택 23/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젤렌스키, 국방장관 전격 해임... “새 접근법 필요”
▲ 네타냐후, 아시아-아랍-유럽 잇는 광케이블 설치사업 제안 /사진 뉴스스

▲ 미네소타 교도소, 폭염에 입방거부 재소자들과 담판 ‘정상회복’
▲ ‘한국사위’ 래리 호건 美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문 닫은것은 아냐”



▲ 바이든 “시진핑 G20 불참 실망... 만나게 될 것” /사진 뉴스스
▲ “중국 4대 은행, 서방 제재 후 대러 대출 4배로 급증”